

겸겸의 '번역'의 불완전성과 그 인지의 공유를 통한 새로운 소통—이수진

문소영 / 코리아중앙데일리 문화부장

어느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다. 유럽 여행에 친구가 동행했는데 옷 쇼핑에만 집착해서 괴로웠다는 내용이었다. 물의 대화 내용이 생생히 적힌 그 글은 2부로 이어졌는데, 2부에서 화자와 문제의 친구 모두 남자라는 게 드러났다. 흥미로운 건 여기에 달린 댓글이었다. “1부 대화를 머릿속에서 여자목소리로 재생하며 읽었는데 웬지 다시 읽어야 할 것 같다.”

이것 덕분에, 작가 이수진이 왜 “글로 씌어있는 텍스트를 소리를 내어 읽는 행위는 문자에서 소리로의 '번역'이라 할 수 있고 소리 내어 읽어진 텍스트를 문자로 기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이다.”라고 하며, “이러한 번역이 알고 보면 매우 불완전하다.”라고 하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작가는 “번역의 불완전성이 결국은 언어 자체의 불완전성을 증명”하며 “언어는 문화적, 인종적, 계급적인 편견과 인식을 읽는 것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한 번역과 언어의 틈과 구멍이 그녀가 일련의 영상작품을 통해 탐구하는 부분이다.

이수진에 따르면 불완전한 '번역'은 여러 겹을 통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미국인이 영어로 말한 것을 국문으로 옮긴다고 해보자. 일단 말소리가 글로 '번역'되면서 그의 억양과 음색, 거기에 담긴 감정, 단어와 단어 사이 쉬는 구간의 길이 차이, 말의 헛나름 등이 사라진다. 여기에도 영어가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영어적 리듬과 종의적 의미와 갖가지 뉘앙스가 없어지거나 변형된다. 물론 한국어로 한 말을 영문으로 옮길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것은 한국인인 작가가 17년 전 미국에 가서 영어를 배우면서 “말하기라는 신체적 행위”를 통해 ‘체합’하고 ‘체득’한 것이다.

이수진은 그런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자 한다. 그녀의 <Text to Speech (Statement)>(2012)는 그 일환의 유머러스한 관객참여형 작품이다. 이 영상작품에서는 작가의 'Artist Statement' 글이 노래방 기계 화면에서 노래가사가 보여지는 식으로 나타나 따라서 낭독할 수 있게 되었다. 그와 함께, 노래방 기계 화면에서처럼 별 의미 없는 풍경 영상이 줄지어 나온다. 단, 노래가사와 완전히 따로 노는 노래방 기계 화면과 달리, 이 작품에서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상의 지시에 따라 낭독한다 해도, 읽는 사람에 따라, 또 읽는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글과 말 사이의 '번역'은 다른 언어간의 번역과 마찬가지로, 단일하고 절대적인 결과가 나올 수 없다.

미국에서 언어와 씨름하며 '번역'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던 중 이수진은 차학경 작가를 알게 되었고 그녀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차학경(1951-82)은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활동하며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보여 기대를 모던 중 범죄에 희생되어 요절한 작가다. 그녀 역시 언어와 번역, 디아스포라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 차학경의 대표적인 실문문학 『딕테(Dictee)』에는 불어, 영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가 교차하고 사진, 도표, 드로잉, 빈 여백이 텍스트와 교차하며, 작가 개인사의 인물인 어머니와 역사 속 인물인 유관순, 잔다르크 등의 여성들이 교차한다.

이수진이 차학경에 대해 고찰하다 창작한 작품 중 하나가 <This Vocie>(2013)이다. 작가는 이렇게 설명했다.

“차학경이 좋아했던 작가 중 하나가 마르그리트 뒤라스였는데, 그녀는 '인디아 송' 같은 작품에서 텍스트화된 목소리가 어떻게 재생되어야 하는지 일일이 지문으로 지시하곤 했다. 그러나 목소리를 글로 묘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다. 나는 차학경의 목소리가 궁금했다. 비디오에 나온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절제되고 비슷비슷한 톤일 뿐이었다. 그녀의 지인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녀의 평상시 목소리에 대해 물었지만, 그들이 설명하려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묘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수진은 흑백 단채널 비디오 <This voice>(2013)에서 목소리에 대해 묘사하는 문장들, 이를테면 “This voice is gentle,” “This voice is low, but not too low” 같은 문장들을 낭독하며 그 제한성을 실감하고 관람자에게 알린다. 화면에는 작가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대신 그녀가 기차를 타고 다니며 찍은 흑백 영상이 그녀의 말의 리듬에 맞추어 단속적으로 나타난다.

번역의 불완전성은 곧 한 개인의 정체성과 역사, 나아가 인류 역사 재구성의 불완전성으로 확대된다. 이수진이 본격적으로 차학경에 대해 다룬 작품인 <차학경 프로젝트 1>(2015)은 그 겸겸의 불완전성에 대한 작품이다. 24분 가까이 되는 비디오에서 이수진이 인터뷰한 차학경의 지인들과 그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딕테』를 낭독하거나 그녀에 대해 이야기한다. 『딕테』가 교차하는 다양한 언어로 역사를 단편적으로 구술하고 재조합하며 역사 기록의 불완전함을 드러냈다면, <차학경 프로젝트> 역시 한 예술가의 정체성이 사람들의 그 작품에 대한 해석과 기억에서 재편집, 재창조되는 지고찰한다. 이처럼 한 개인이 지인들과 연구자들에게 '번역'되어 이야기되는 동시에, '영어'로 '말'해지는 그 이야기가 '한국어' 자막 '글'로 다시 번역되어 영상 하단에 흐른다. 즉 겸겸의 번역의 불완전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자막을 넣지 말라 했는데, 작품의 일부로서 자막을 넣기로 했다. 영어-한국어의 번역일 뿐만 아니라 말을 하면서 더듬는 것, 말을 시작할 때 의미 없는 감탄사 등등을 넣을까를 결정하는 게 모두 말-글의 번역이었다.”고 작가는 설명한다.

이수진의 일련의 작품을 보면 언어학적, 철학적 성격이 강하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번역과 언어의 불완전성에 대해 학술논문을 쓰는 대신 예술작품을 만드는가? 여기에 대해 작가는 이렇게 답한다. “예술이 학문보다 더 적고 더 밀착된 관객을 갖는 것 같다. 나는 내 작품을 가까이에서 보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미술은 대개 관람자가 작품을 보러 공간적으로 이동을 해야 해서 작가와 더 밀착되는 면이 있다. 특히 퍼포먼스의 경우에 관객이 그 시간을 투자해서 한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것을 공유함으로써 철저히 연결된다. 나는 번역의 불완전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즐기보다는 그 불완전성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

즉 이수진은 소통의 불완전성을 초래하는 번역과 언어의 불완전성을 탐구하면서도, 그 불완전성의 경험과 인지를 관람자와 나눔으로써 새로운 소통을 시도하는 셈이다. 불완전한 소통의 경험을 공유하는 소통, 이것이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세상에서 힘을 갖는 이수진의 역설적 예술이다.

